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말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력 품내
● 끊임없는 연구로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자신 허물고 새 틀 만들기 '삶의 조각'

신문박의 **시방**

원로조각가 김영중씨



◇64년 제작된 동국대 명진관 앞 석기여래 불상. 최근 보수작업을 했다.

"조각이란 정신(spirit)이 전적으로 재료의 매체 속에서 스스로 상상토록 만드는 놀랄만한 무식력(投射力)을 행사한다." 해설은 조각을 이렇게 정의했다.

우리나라 현대 조각계를 이끌어 온 원로 조각가 김영중씨(73세)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덧붙인다.

"조각은 본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먹고, 배설하고, 걷고, 웃고, 울고 하는 것처럼 눈뜨면 그저 조각을 하는 겁니다. 조각속에 그런 일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에게 조각은 삶의 일부요 삶은 조각의 일부다. 삶과 조각, 경계가 없는 그의 조각인생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는 살아있는 조각이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말그대로 모습은 아니었다. 때론 다듬어지지 않은 돌표면처럼 거칠기도 했고, 차갑고 날카로운 철조각같기도 했다. 또 반쪽되지 않은 흙처럼 이리저리 흠어지기도 했다.

홍익대 미대를 갓 졸업한 5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 미술을 한다는 것은 밥먹고 사는 일을 포기하

도 그때의 인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초 그는 당시 동국대 총장이던 백성욱박사로부터 특별하고도 별난 동상 제작을 요청받았다. 사진도 한 장 없는 사람을 3시간이 넘게 설명하더니 자기가 말한대로 한 달안에 동상 모양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다. 무리한 요구였지만 당시 그에게 있어 그런 작업을 요청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동상을 만들어야 하나 한달내내 고민 하다가 부처님 흉상을 내어, 참선을 해보자는 생각에 무작정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다. 이것 저것 번민이 여간 아니었지요. 그렇게 한 열흘을 앉았더니 조금씩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토대로 그사람의 형상을 관상학적으로 접근해 간거죠."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농축해서 간신히 모형을 만들어 사진을 가져간 그에게 백박사는 동상 모형과 꼭 닮은 작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사진 보고 만드는 것은 모두 뒷이야. 달게도 안 달게도 할 필요없이 당신 마음대로 만드시오"라고 말했다고, 성공적으로 그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내가 찾아 갈 때면 언제나 '모든 것을 비우고 또 비워라. 비우면 그만큼 충만해진다. 그 충만한 것까지도 비워라' 하시던 백박사님의 그 가르침을 철심이 넘은 이재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후로 그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가부좌를 하고 앉는다. 반드시 참선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일어나서야 아니다. 조각이 그에게 본능인 것처럼 일종의 본능으로 그는 참선을 한다. 눈을 감고 앉아 자신을 통해 구현될 조각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 아름다운 조형언어를 조각함에 담아낸다. 생각이 담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조각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그의 하루는 온통 조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매워져 있다. 매일 오전 10시 자신의 사무실이자 전시실이며, 작업실인 연희호텔관에 나와 저녁 10시 즈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단 1분도 쉬는 일이 없다. 조각을 구상하지 않으면, 미술계의 발전을 위한 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기에 바쁘다. 원로라 불리는 대부분의 이들이 현장에서 뒤로 한발짝 물러나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조각가로서 삶의 중심에 아직도 단단하게 서 있다. 원로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그가 만든 작품은 자신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다. 대표적인 것만 1백여점.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그러나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조각가들이 만든 작품을 일반인들에게 바르게 이해시키고 평가받도록 하기 위해 76년 입체물인 조각작품계산기준법을 만들었다. 조각의 크기와 기준을 정해 중(重)을 단위로 한 조각작품계산기준법은 재료의 사용량만을 중심으로 측정하던 조각의 가치를 예술적 가치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가 6년간의 연구를 거쳐 고안한 것이다. 조각작품계산기준법은 이후 입안공포책 지급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요즘 그는 미술계의 개혁을 위한 법개정 등 관



◇"도전하는 정신없는 조각가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73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로 조각가 김영중씨.

**"비우고 또 비우면 충만해진다
그 충만까지도 비워라"
이제야 알것같은 백박사 말씀
작업전 가부좌틀고 정신집중
'한국인상' 등 대표작 1백여점**

는 것과 같았다. 조각가는 직업으로 인식조차 되지 못하고, 해박자 돈도 안됐다. 도대체 무얼하는 것인지 남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조각을 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방 뒷쪽에 앉아 작품을 구상하고, 통방거렸다. 때로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도장도 파고, 나무장작도 팔고, 영화자막도 만들었다. 심지어 서울역 주변의 다방공사까지도 했다. 그렇게 험한 세월속에서도 조각은 그가 살아 가는 최대의 목표로 중심에 있었다.

"높은 산에서 굴러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조각. 그것이 조각이라는 은사 윤호중선생(작고)의 가르침을 항상 가슴에 담고, 시각적으로 어디 한군데 약하게 보이는 데 없이 완고하고 튼튼한 조각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거기다 자신의 생각과 삶을 투영시켜 내면적으로도 단단한 자신만의 조각세계를 펼쳐나갔다. 인물 중심의 구상조각이 주류를 이루는 그의 작품은 내면으로부터 분출되는 역동적인 힘과 의지를 보여준다.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강인한 한국인상', 현대건설의 '건설역군상', 광주비엔날레의 '경계를 넘어' 등 대표 작품속에서 그런 조각세계를 만날 수 있다."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조각의 소재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활용집 조각을 주로 했습니다. 동국대의 4·19기념탑, 명진관 앞의 불상도 그 시절에 만든 것이지요. 이번에 동국대 1백주년 기념관의 대각전 본존불상을 조성하게 된 것



◇연희호텔관 1층 전시실 작품시이에 선 김영중씨는 완고하고 튼튼한 조각 속에 삶과 생각을 투영시켰다.

연작업을 준비중이다. 그의 사무실에 조각품과 화구보다 사회와 법, 행정 등 온갖 서적이 즐비해 있는 이유도 거기에서 있다.

"도전하는 정신 없는 조각가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미술개혁 작업도 조각가로서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돌을 깨고, 흙을 반죽하는 모든 과정만이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틀을 허물어 내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나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조각이요,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깨지고 부서진 그곳, 경이로운 모습을 드러낸 그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글=이은지 기자(ejee@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nia.com)



◇86년에 제작한 독립기념관 상징조형물 '강인한 한국인상'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온순하고 영험한 동물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표충사 12지신상 벽화중 '양', 조선시대.

양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동로간의 우위다름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고 싸우지 않고 온순하게 평화롭게 상경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천성이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양은 예로부터 길종화복을 알려주는 영험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동 서양을 막론하고 계몽로 많이 쓰여왔다. 양의 모습을 본뜬 '羊'자는 모든 기쁨을 포괄하는 글자로 아름다움(美) 상서로움(祥) 착함(善) 의로움(義)등의 효자에 다 들어가 있다.

불화에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원숭이 닭 개 돼지 와 더불어 양이 12지신으로 등장한다. 12지신상도, 농묘의 호석, 고분벽화, 석탑, 석관, 부도, 동

경, 불구류 등에 나타난 양은 12지신의 여덟번째 동물로 오후 1~3시와 음력 6월을 지키는 시간신이자 남 서남을 지키는 방위신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원종 그림은 조선시대 그려진 표충사의 12지신상 벽화중 양의 모습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을 일컬어 목자가 돌보는 양에 비유한다. 교회지도자를 목사(牧師), 목사의 교회운영을 목회(牧會)라고 함도 양과 목자의 이러한 비유에서 유래한 말이다.



◇보티첼리작 '모세의 시련' (부분), 1481~3년. 시스티나 성당 소장.